

데스크 시각

수녀님의 선물방



김미은 문화1부장

꼭 한 번은 가 보고 싶었던 ‘그곳’을 드디어 찾았다. 환한 미소의 그녀는 보자마자 선물 보따리부터 안겼다. 인상적인 건 선물로 준 책과 함께 놓인 붉은 산다화 한 송이었다. ‘아! 짧은 김탄사와 함께 ‘걸어 다니는 선물 가게’답다 싶었다.

2003년 첫 인터뷰 후 꼭 13년 만의 방문이었다. 당시 그녀의 작은 천가방에선 책이며 양초·염서·조개껍질 등이 끝도 없이 나왔다. 인터뷰 중 “작은 가방이 무슨 보물상자 같다” 했더니 그녀는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 는 거”라고 했다. ‘민들레 영토’의 시인 이혜인 수녀 이야기다.

그녀가 머무는 부산 광안리 성 베네딕도 수녀원엔 ‘해인 글방’이 있다. ‘작은 우체국’으로도 불리는 선물방이다. 그녀는 이곳에서 글을 쓰고, 문서 선교를 하

고, 독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아직까지한 물품들로 가득찬 선물방에 값비싼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그녀를 위하는 마음과 정성이 담긴 것들이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조가비, 메모를 위해 수녀복 호주머니에 연필을 넣고 다니는 걸 아는 지인들이 보내 준 각양각색의 풍단연필, 마음을 나누는 벗이었던 장영희 교수의 유품, 그리고 영정사진으로 쓰고 싶다고 말한 사진 등 물론 그 속에는 그녀가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는 소박한 선물들도 자리하고 있다.

사형수의 참회 편지

무엇보다 정성이 담긴 편지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녀를 따라 들어간 ‘편지 창고’에는 엄청난 양의 편지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수십 년 동안 한 독자가 보내 온 편지는 언젠가 그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따로 챙겨 두었다. ‘서진 룬살롱’ 사건 사형수들이 보낸 편지와 선물도 있었다.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 7명은 밥풀을 짓겨 만든 작은 십자가와 식빵 봉투를 묶는 작은 끈을 이어 짚신을 만들어 보내고 참회의 편지를 썼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물건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돼 생각하고 전

해 주면 귀한 선물이 된다”고 했었다. 며칠 전 푸른길 공원을 자주 산책하는 지인이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산수동 굴다리 인근을 산책하는데 누군가 매일 노인들에게 간식을 ‘선물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매일 오후 3시, ‘간식함’에 50인분의 빵과 우유를 채워 둔다. 취재를 해 보니 그는 오랫동안 나눔을 실천해 온 구제길 씨였다. 지인은 이 말을 전하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나도 몇 분에게 작은 선물을 해 볼까?”했다. 어쩌면 그도 어딘가에서 동네 어른에게 간식을 대접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올해 들었던 따뜻한 뉴스 중 기억에 남는 건 ‘냉수 천사’ 이야기다.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아저씨가 4년째 택배기사, 미화원, 경비원에게 ‘일용 생수’를 제공한다는 미담이다.

그는 매일 오전 9시쯤 미리 열린 500ml 용량 생수 30여 병을 경비실 앞 아이스박스 에 넣어 뒀다. 소식을 들은 누군가는 생수 구입비를 후원했다. 동네 돼지국밥집은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에게 생수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택배 기사 등에게 ‘일용 냉수’를 전달하고 있다는 글들도 이어졌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낳는다. 성탄절에 사정한 ‘다큐 3일’은 서울 요

셉의원 이야기를 다뤘다. 1987년 문을 연 병원은 의료보험 이용이 불가능한 영등포 쪽방촌 사람들에게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무료 진료’를 해주는 곳이다. 지금 까지 진료 건수는 60만 건에 달한다.

나눔은 전염된다

병원 살림은 항상 어려웠다. 직원들은 “언제나 부족했지만, 언제나 채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후원자 8000명과 의료 봉사자들이 그 힘이였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삶속에서도 150만 원 상당의 당첨된 복권을 요셉의원에 ‘선물’한 기한한 ‘그 환자’의 이야기는 몽클했다. 연말연시, 모임이 많은 요즘이다. 애써 챙겨 안부를 묻게 되는 때이기도 하다. 마 음에만 담아 두었던 작은 선물 하나씩 건네도 좋을 듯하다. 돌아오는 길, 수녀님에게서 두 권씩 갖고 있는 고전 문학작품 여러 권을 선물로 받았다. 책들은 광주일보가 정기적으로 기증하는 아름다운 재단 용봉동 헌책방에 보낼 예정이다. 그러면 책방을 찾은 누군가가 그 책을 사게 되고, 그가 지불한 몇천 원은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는 데 쓰일 터다. 나눔은 전염된다. /kim@kwangju.co.kr

은편칼럼

로컬푸드 공유할 가공공장 필요하다



류동훈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전문위원

성탄절을 앞둔 지난주 동곡농협과 함께 광주 광산구 동곡동 주민들을 모시고 완주 로컬푸드 거점가공센터와 해피스테이션 로컬푸드 매장에 연수를 다녀왔다. 완주는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성공을 거두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곳이다. 이 로컬푸드 운동은 인근에 있는 전주로도 확산되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제단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를 만들어 시민들이 시민주로 주인이 되고, 순천시도 함께 투자하였다. 로컬푸드지원 조례도 만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도 광산구 평등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남구도 로컬푸드 매장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나 완주에 비하면 광주는 시장이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광산구에서는 평등, 본량, 삼도, 동곡 등 농촌동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탐방 교육을 진행해 왔었다.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느낀 결론은 로컬푸드 매장만 운영하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로컬푸드 매장에 좋은 가공식품이 진열되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첨가물이나 수입산 농산물을 재료로 하지 않고, 품질 좋은 가공식품을 만들게 되면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로컬푸드 매장으로 유인할 수 있고, 유통기한도 길게 할 수 있다.

완주는 로컬푸드 거점가공센터를 고산면과 구이면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특징은 생산자인 농민들이 직접 가공에 참여하고, 가공시설을 함께 공유하면서 교대도 사용하며, 판매를 위한 여러 행정서비스들은 전문가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 준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생산과 가공에만 전념하고, 제품의 허가, 상표, 유통은 전문가들이 처리해주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을 가공하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고, 가공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조직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시설들은 위생실, 세척을 하는 전처리실, 교육실습실, 제품검사실, 반찬가공실, 건

조한 제품을 생산하는 견식가공실, 죽이나 쟀 종류를 만드는 습식가공실, 제과·제빵실, 냉장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특이한 점은 가공공장의 시설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다. 가루를 만드는 시설에서 콩가루, 꾸지뽕가루, 아로니아 가루 등 재료만 바꾸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즙을 만드는 시설에서는 딸기즙, 사과즙, 포도즙도 같은 기계로 가공이 가능하다. 절임 반찬을 만드는 기구로는 고추절임, 마늘절임, 양파절임 등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공공장을 공유해서 사용하게 되면 시설비를 절감하고, 생산된 제품의 상표와 포장을 함께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생산단가를 낮추고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곳의 모든 제품은 생산자가 직접 가공한다는 것과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고, 완주산 재료만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신뢰를 쌓아서 로컬푸드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로컬푸드 매장에서만 팔아도 모두 판매가 가능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로컬푸드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다른 1차 생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신선한 1차 생산물이 하루를 넘기면 모두

함께 운영하는 로컬푸드 식당의 식재료로 바로 사용해 버려서 재고를 남기지 않는 데, 해피스테이션에서는 완주산 재료로만 운영하는 식당도 함께 운영하는 이곳에서는 커피와 생선종류는 없다. 커피와 생선은 완주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이곳 로컬푸드 식당에서 로컬푸드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매장의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 광주는 로컬푸드 매장 개장에 집중하고 있으나, 거점 공유 가공센터와 로컬푸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식당도 함께 운영하여야 상호 시너지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매장은 농협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장에 나서고 있으나, 거점가공센터는 소모되는 초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서 숨통을 터줘야 시작할 수 있다.

로컬푸드는 단순히 농민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소비자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광주지역 자치단체의 고감한 결단과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노력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기 고

문화전당 개관 1년을 되돌아보며



기영준 아시아문화원 전략기획팀장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역사상 전대미문의 규모와 혁신적 기능을 중심으로 설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이하 전당) 지난 11월 개관 1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중앙과 지역의 문화예술계에서는 전당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보일지 관심이 높았다. 또한 광주시민들도 전당이라는 넓은 공간에 대한 궁금함, 어렵다고 알려진 공연 및 전시 콘텐츠, 그럼에도 지역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친숙한 어린이문화원 등 다양한 이미지와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난 1년간 전당의 행보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는 지난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주제로 열린 시민대토론회에 토론자 요청을 받은 후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왜냐하면 지역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전당의 입장에서, 지난 1년간 전당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었.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현황과 7대 문화권 사업, 전당 개관 후 1년의 성과와 과제 등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전당의 다양한 시민들과 관계자들은 지역 문화예술 및 산업환경의 변화, 공간적 변화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다양한 논의가 다면적·다층적으로 오가는 가운데서도 필자가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참여한 모든 분들이 지적하는 기저에 전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당이 어떤 곳인지 일견 이해하기 쉽지 않다 보니 각자의 기대와 평가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당의 지난 발걸음을 되돌아 보기 전에, 먼저 전당 특성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와 28조에 의하면, 운영적 측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과 아시아문화원(준정부기관)의 협력으로 전당을 운영한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예술의전당 등 기존 국립·문화기반시설처럼 단순 대관이나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문화 관련 연구, 공연·전시 등 콘텐츠를 자체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적 측면에서는 광주 및 호남지역의 소비인구수와 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사회·경제적 환경은 타 지역대비 열악한 수준이다. 또 콘텐츠 제작방향 측면에서는 아시아성과 동시대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 친밀도가 낮을수도 있다. 역사적으로는 5·18 정신을 상징하는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전당은 언급한 다섯 가지 측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발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몇 가지 사례가 있다. 먼저 전당의 운영 성과이다. 개관 이후 12월 현재까지 전당 5개 시설의 누적발문객은 290여만 명, 공연·전시 등 콘텐츠 216종 제작, 자체제작 등 공연 19개 작품을 42개국 145개 지역에 선보였으며, 1만여 명의 시민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성과를 만들었다. 지난 해 말 전당에서 시행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당에 대한 인지도는 26.5%, 만족도 70%, 추천도 77%, 재방문 희망자는 76%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전당의 인지도는 낮지만 한 번 찾아온 관람객의 만족도는 높아, 이후 점진적인 방

문객 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11월 24~27일 간 개최된 개관 1주년 페스티벌에 약 6만2000명의 시민이 방문하여 그 가능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전당은 시민과 예술가·창작자들이 더 붙어 만들고 사용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 최근 서초구에서 네트즌을 대상으로 서초구의 명소를 조사한 결과, 예술의전당이 1위로 꼽혔다는 전당의 입장에서 매우 부러운 기사를 보았다. 하지만 이를 부러워하기에 앞서, 예술의전당도 1988년 개관한 이래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안착화가 이루어져 현재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의 전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첫 돌을 맞은 전당에게는 성급한 판단과 흔들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통해 신뢰와 격려, 애정으로 지켜보고 자주 찾아주는 관심이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전당의 문화기반시설로서의 기능과 16만㎡의 넓은 공간을 활성화하면서 설립철학과 방향성을 유지하여 타 문화 예술기반시설과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비판이나 걱정보다, 지난 10년간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만든 현재 비전을 향해 성실한 발걸음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다.

社 說

개혁보수신당 통렬한 반성으로 거듭나야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계 의원 29명이 27일 집단 탈당과 함께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신당은 다음달 24일 창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먼저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포함 모두 30명의 의원을 확보, 이날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했다. 이로써 20대 국회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등 4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됐다.

이들은 이날 창당 선언문을 통해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빛을 올린다"고 밝혔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개혁보수신당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 세력의 적통성'을 놓고 새누리당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수의 '개혁'에 방향을 찍고 있는 신당을 바라보는 민심은 그리 밝지않은 않다. 그들 역시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적 기득권 정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주의에 기대어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구체제 세력이라는 점도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아권에서는 국정 농단의 책임에서 벗어나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려는 '새누리당 2총대'라는 흑평까지 하고 있다.

결국 신당이 바람 부는 별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차별의 대상이었던 호남을 찾아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며 지역주의 타파에 강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사회 취약계층을 깨닫는 정책공약 등 깊은 성찰의 자세도 요구된다. 정치공학적인 계산에서 벗어나 민생과 시대에 백의종군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민생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수의 '개혁'에 방향을 찍고 있는 신당을 바라보는 민심은 그리 밝지않은 않다. 그들 역시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진상 철저히 밝혀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거침없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진실이 드러날 것인 지 주목받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것은 장관 퇴임하기 직전인 2014년 6월경으로 기억을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6월에 문서가 왔다"며 당시 "이 블랙리스트를 정부 수석비서실에서 만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리스트가 작성되기 이전에는 수시로 비서관 등을 통해서 긴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구두로 문체부로 전달이 됐었다"고 말해 블랙리스트를 김 전 비서실장이 주도했음을 폭로했다. 유 전 장관은 "그 후로 명단이 아주 무차별하게 확대가 돼 거의 1만 명 가까운 수준으로 나서서 개장에 나서고 있으나, 거점가공센터는 소모되는 초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서 숨통을 터줘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자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은 문화예술계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주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문체부 관계자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증언이 나온 데다 유 전 장관의 구체적인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진실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증언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청와대가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보낸 것이며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당시 청와대 정부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당사자라고 거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블랙리스트는 없다"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헌민주적 타당이다. 권력을 동원해 개인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막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민주 정부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사인 만큼 철저히 진상을 밝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30대 A씨 부부는 결혼 3년차 공무원이다. 남편은 전남도청, 아내는 광주 모 구청에 근무하는 까닭에 주말에만 광주 신흠집에서 만난다.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꼭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도 없다. 우선은 자기계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아파트 대출금 부담도 있어 출산 계획을 미루고 있다. A씨 부부는 말하자면 전형적인 딥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를 갖지 않

았다. 특히 결혼 적령기(20~49세)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68.1%나 돼 11만2000

딥크족과 싱글족

같은 또래의 B씨는 싱글족이다. 30대 중반이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직업을 갖지 못한 취업 준비생 신세다. 그렇다고 쟁쟁한 세기처럼 마냥 부모 보호 밑에 있을 수만 없어 1년 전 대학가원으로 분기했다. 딥크족과 싱글족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통계가 같은 날 나왔다. 통계청이 처음으로 국내 신흠부부(결혼 5년차 이내, 초혼) 118만 쌍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해 보니 아이를 낳지 않은 비율이 35% 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맞벌이 에다 연봉이 높을수록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평군 자녀 수도 0.90명이었지만 맞벌이 부부는 57.9%만 아이를 낳았고 평균 자녀 수도 0.72명에 불과했다. 연봉으로 보면 무자녀 비율이 3000만 원 미만은 33%였지만 7000만 원 이상은 44%에 달했다. 주택 보유 여부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쳐 집이 있는 사람의 출산 비율은 68.4%였지만 없는 사람은 61.5%였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니 광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8%(16만 4000가구)로 10년 만에 10%포인트 늘었다. 특히 결혼 적령기(20~49세)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68.1%나 돼 11만2000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